# 진도군 초평항,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추가 선정

## 동헌항(50억 원)에 이은 겹경사… 어업·관광·정주가 어우러진 어촌경제 거점 조성

진도군은 의신면 초평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유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발표된 동헌항의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선정에 이어 초평항이 유형1(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진도군은 올해 사업에서 두 부문 모두 선정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총 3조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사업이며, 유형1은 어촌의 경제 기반과 공동체 중심의 플랫폼을 조성하는 핵심 사업으로, 단일 지구당 최대 3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초평항 사업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촌경제 플랫폼 구축 ▲수산물 유통과 가공기반 확충 ▲관광·체험형 어촌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초평항을 진도군의 대표 관광미항으로 조성해 이를 마중물로 대명관광단지(쏠비치 진도)와 소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거점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진도군은 동헌항(50억 원)과 초평항(300억 원)의 공모 선정으로 올해에만 총 350억 원의 어촌 개발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어촌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선정된 것은 진도군의 지역 맞춤형 전략과 행정 역량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어민이 웃으며, 방문객이 머무는 활력 넘치는 어촌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군은 앞서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15개 항에 668억 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이후 총 6개 지구에 약 8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재생사업'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 고흥 바다에 희망을 풀다… 감성돔 방류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5일 도양읍 북촌지선에서 감성돔 종자 10만 9천 마리를 방류하며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의원, 고흥군수협 조합장, 고흥군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원, 어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더했다.

방류된 감성돔은 전장 5~6cm 내외의 건강한 치어로, 생존율과 자원 회복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류사업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 활동,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풍요로운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해마다 다양한 어종의 수산 종자를 지역 연안에 방류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과 친환경 수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보성군, '보성 달 모임' 개최로 직원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 형식은 내려놓고, 즐거움은 두 배로! 활력 넘치는 달 모임

보성군은 매월 초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보성 달 모임'을 개최하며 기존의 형식적인 월례조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보성 달 모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달 모임은 ▲부서 간 업무 공유, ▲직원 자유발언, ▲군수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군정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직원 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6월 보성 달 모임'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오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직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직원 자유발언 시간에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기후환경과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일상 속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해 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높였으며, 재무과에서는 향후 보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추진 배경과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며 군정 비전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성군은 달 모임을 통해 매월 지역 상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쿠폰 추첨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활기차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더 큰 창의력과 협업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조직이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성 달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소통하는 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 무안군, 여름철 감염병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 10월 12일까지 운영, 개인위생 수칙 철저 준수 당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 등 계절성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여름철에는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설사, 구토,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을 유발하는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고, 야외활동, 행사, 휴가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도 커지는 시기다.

이에, 무안군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집단 유증상자 발생 여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분변, 구토물, 침 등을 통한 사람 간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되므로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조리기구는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기 등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같은 음식을 섭취한 후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며, "빈틈없는 방역과 예방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영광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확산 방지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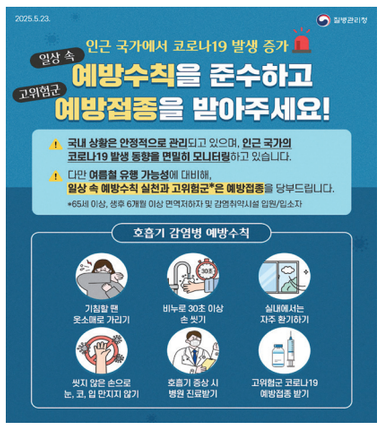
### 여름철 주기적 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아시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와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대책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난 3년간 국내에서 7~8월 코로나19 유행 사례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장소에서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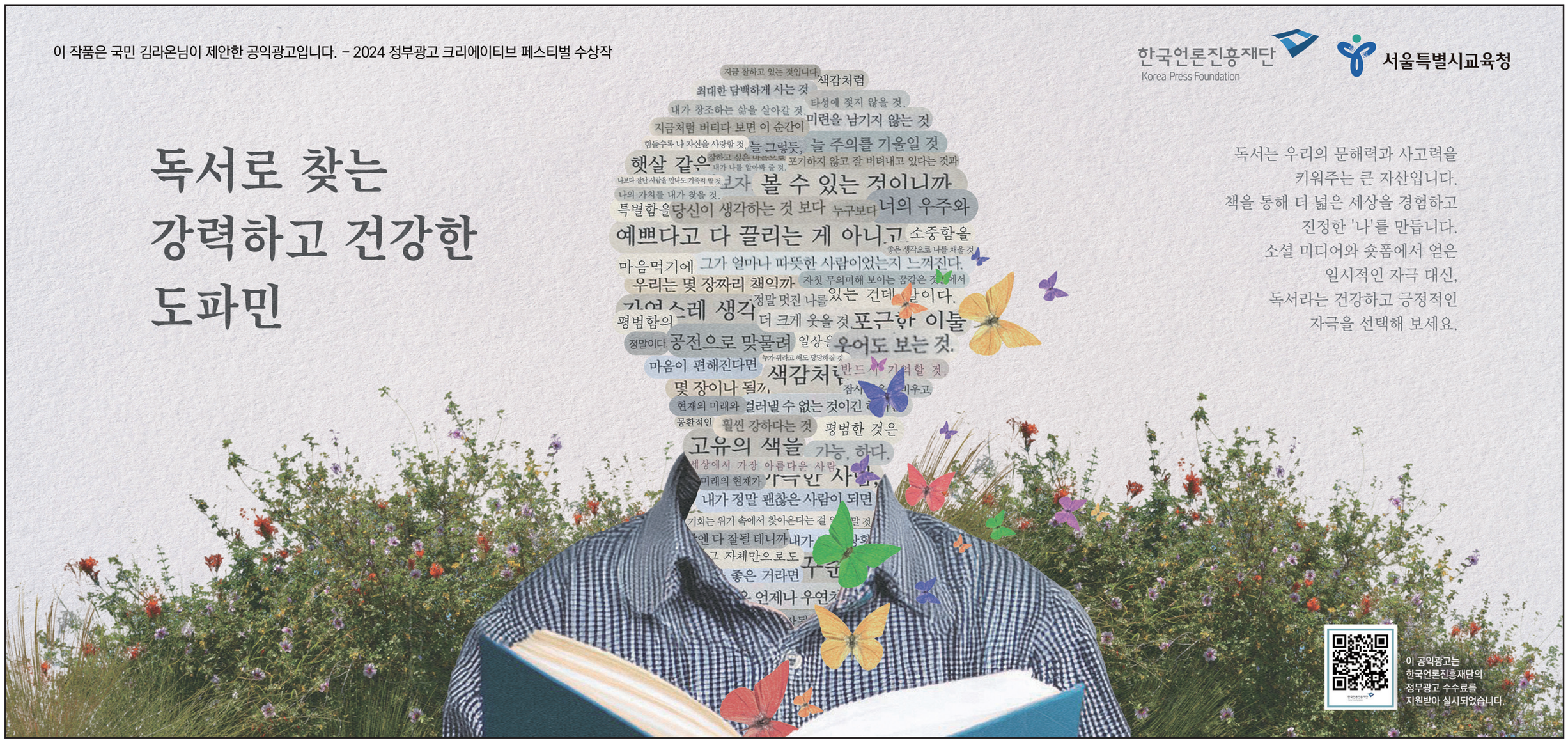
## 광양시, 찾아가는 '올해의 책'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아무네 가게」 함께 읽기,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 진행

광양시립도서관은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올해의 책'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가 매년 추진 중인 '시민 한 책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5년 '올해의 책'으로는 ▲성인 분야 『찬란한 멸종』(이정모, 다산북스) ▲청소년 분야 『고요한 우연』(김수빈, 문학동네) ▲어린이 분야 『아무네 가게』(정유소영, 고래가숨쉬는도서관)가 선정됐으며, 독서 릴레이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분야 선정 도서인『아무네 가게』를 더욱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어린이 분야 선정 도서인 『아무네 가게』는 아픔을 치유하는 물건을 파는 신비한 가게 '아무네 가게'를 배경으로, 각자의 상처를 가진 손님들이 가게의 물건을 매개로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은 동화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6월 4일 광양백운초를 시작으로 마로초, 제철초, 마동초, 중진초, 칠성초, 성황초 등 총 7개 학교, 12개 학급이 참여한다.

광양/신선호 기자